

15장. 중보 기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나온 둘째 고백

1. 중보 기도의 금지 (15:1-4)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은 14장 후반부의 기도 에 대한 응답이다. 14장 후반부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기로 하였고, 자기 예언자에게도 그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가 간구하여도 여호와 의 마음은 그들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들이 ‘어디로?’ 하고 묻는다면 ‘염병, 칼, 기근, 포로’ 로 향한다고 대답하라고 하셨다(참조 14:12). 그들은 네 가지 방식으로 철저히 멸절될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3절에서는 ‘칼, 개, 새, 짐승’ 으로 그 들을 벌하여 시신까지도 온전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엄히 벌하시는 것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우상을 섬긴 그 죄를 심판하여서 이스라엘 을 온 세상에 흠을 것이다.

2. 예루살렘을 심판하심 (15:5-9)

세상에 흠어진 이스라엘에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인데, 5절에서는 세 가지 질문으로 그 사실 을 상기시킨다. 누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통곡하고, 그들의 ‘평안’ 을 물을 것인지를 묻는 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다. 첫째,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인데 그들을 위하여 곡할 자 도 없고, 그들의 ‘평안’ 을 물을 자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평안’ 을 원하여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통곡하고 평안을 주 실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셨다.

세 가지 질문을 한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다. 예루살렘이 이러한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모두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돌이키라고 하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치셨다. 형식적으로만 돌이키고, 속으로는 자기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들을 이 제는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를 멸절시키고, 유족하던 자로 과부가 되게 하셨다. 일곱 자 녀의 어머니가 과부가 되는 것을 아직 해가 중천에 있을 때에 갑자기 떨어져서 어둡게 된 현상에 비유하였다. 중년의 어머니가 일곱 자녀를 잃고 나자 갑자기 할머니가 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여호와 의 재난이 철저 하고 갑자기 온다는 사실을 이러한 예로 표현한 것이다.

과부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 과 같다. 언약의 용어로 그들의 재난을 표현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다시 이루실 것을 암시한다.

3. 예레미야의 둘째 고백 (15:10-21)

1) 예레미야의 첫째 질문과 대답 (15:10-14)

첫째 질문 (15:10)

10 내게 화가 있습니다. 어머니!¹²⁾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저는 온 세상과 다투는 사람이고 논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꾸어준 일도 없고 그들이 나에게 꾸어준 일도 없으나

그들이 모두 나를 저주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머니가 자기를 세상에 낳은 것을 재앙으로 이야기한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기뻐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재앙으로 말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예레미야가 자기의 태어남을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문맥에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에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여 어머니 들이 기절하는 맥락에서 이 말이 이해된다(15:7). 예루살렘이 비참한 종말을 당하면 예레미야나 그의 어머니도

12) 문자적으로는 ‘나의 어머니!’

동일한 탄식을 할 것이다. 둘째, 예레미야의 태어남은 모태에서부터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그의 소명과 관련이 있다. 그는 열방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나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싸움과 법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그의 탄생은 재앙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툼과 침을 당할 자’ 라는 말은 ‘법적 논쟁과 싸움의 사람’ 이라는 뜻이다. 싸움은 대상에 따라서 무 겁기도 하고 가법기도 한 것인데 예레미야는 온 땅과 싸운다. 예레미야는 ‘열방의 예언자’ 로 모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1:5) 그 열방은 거역하는 이스라엘이었고 또한 바벨론과 같은 이방나라였다. 일당백(一當百)의 용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당온세상’ 의 용사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그러한 어려움에 떨어졌다.

온 세상이 예레미야에게 논쟁을 하면서 덤벼들 때에는 그가 꾸지도 않은 것을 갚아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건다. 예레미야는 사람에게 무엇을 꾸 적인 없는데도 그것을 갚아주어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 예레미야의 사정은 시편 69편의 시인과 비슷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한 고난을 겪으며, 사람들이 모두 저주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한다. 자기를 저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서 받은 그 말씀을 저주한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전하는 말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는 자기의 태어남, 곧 소명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첫째 대답 (15:11-14)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정녕 내가 선을 위하여 너를 섬길 것이다.¹³⁾

정녕 재앙과 고난의 때에

너의 원수가 너에게 간청하게 하겠다.

12 철이 북에서 오는 철과 낫쇠를 깨뜨리겠느냐?

13 너희의 온 땅에서 행한 너희의 모든 죄로 인하여

무료로 너의 재산과 너희 보물을 내가 노략물로 줄 것이다.

14 내가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게 하리니

나의 분노에 불이 붙어서

그것이 너희를 사를 것이다.

예레미야가 자기의 태어난 날을 들어서 재앙이라고 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예언자의 그러한 탄식을 들어주시고 세 가지로 대답해 주셨다.

첫째, 그를 강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의 재난과 환난의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서 그에게 선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하셨다.

둘째, 철이 북방의 철과 낫을 꺾을 수 없다고 하셨다.¹⁴⁾ 철과 북방의 철과 낫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해석에서 중요하다. 철과 낫에 대한 것은 1:18에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낫성벽이라는 말이 15:20에서도 예레미야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용례를 보면 철과 낫은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는 말이다. ‘북방의 철’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낫’ 은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철’ 처럼 완고하게 말씀을 거역하여도 그들이 북방의 외적을 이길 수 없고 또한 예레미야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주는 말이라 생각한다.

셋째, 13-14절의 ‘너희’ 와 ‘너’ 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2) 예레미야의 둘째 질문과 대답 (15:15-21)

예레미야의 둘째 질문 (15:15-18)

15 여호와 주님, 주님은 아십니다.

13) 혹은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다.’

14)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낫을 꺾으리오?” 하고 번역하였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가) 꺾는다, 철, 북방의 철과 낫’ 의 순서로 되어 있다. 철을 동사의 목적으로 보면 그가 철, 곧 북방의 철과 낫을 꺾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철을 동사의 주어로 보면 철이 북방의 철과 낫을 꺾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위하여 저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진노를 참으시다가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 때문에 제가 수치를 짊어짐을 알아주십시오.
- 16 주님의 말씀이 발견되면 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기쁨과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 17 저는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안지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이 제 위에 있기 때문에 홀로 안았으니
 주님께서 진노로 저를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 18 어찌하여 저의 고통이 계속되고
 저의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치료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까?
 참으로 주님은 저에게 속이는 시내,
 믿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15-18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기의 속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은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다고 하는 말까지 한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러한 표현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15-18절은 각 절 안에 중요한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된다. 15절에서는 ‘안다’, 16절에서는 ‘말, 씹’, 17절에서는 ‘안다’, 18절에서는 ‘이다/같다’ 는 말이 두 번씩 사용되어서 질서가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꾸지 않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된 것 같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다. 시인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질서와 확신이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주님,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면서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한다. 그런데 무엇을 아는지에 대하여서는 밝히지 않고 자기의 답답한 심정에서 말을 시작한다. 그다음에는 명령형 다섯 가지가 나온다. ‘기억하소서’ ‘권고하소서’ ‘보복하소서’ ‘멸망치 말게 하소서’ ‘수치를 아시옵소서.’ 명령형을 이렇게 연이어서 사용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요동하는 마음을 잘 나타낸다.

첫째, 주님께서 자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 중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일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다(출 2:25).

둘째, 하나님께서 ‘권고’ 하여 주시기를 구한다. ‘권고’ 한다는 것은 ‘찾아온다’ ‘방문한다’ 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원수에게 심판을 행하시거나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시는 일이다.

셋째, ‘보복’ 해 주시기를 구하였다. 다섯 명령형에서 중앙에 있는 이 말은 15절의 핵심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지 않는 그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 말씀대로 보복해 주시기를 구하였다. 자기의 방식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보복해 주시기를 구하였다.

넷째,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자기가 멸망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구하였다. 참된 인자가 있으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너무 오래 참으면 자기가 원수의 손에 죽을까 두려워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다섯째, 자기가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구하였다. 15절에는 ‘아십시오’ 하는 말로 시작하고 목적어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그 동사의 목적어를 밝힌다. 자기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께 호소한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자기의 곤궁한 형편을 아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자기가 당하는 수치를 묘사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었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마음으로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 1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혼인 생활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은 것을 기록한다. 그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함께 앉거나 먹거나 마시지도 않았다. 그 땅에 임할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다(16:8-9).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오는 갈등을 18절에서 호소한다. 그는 자기의 고통은 계속되며 상처는 낫지 않고, 주님께서는 자기에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다’ 고 불평한다. 이스라엘에는 계절천이 있는데, 여행하는 사람이 전에 물이 흐르던 곳을 기억하여 그곳에 가 보면 거기에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한 경우를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와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표현을 ‘생수의 근원’ 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께 사용한다(렘 2:13. 참조 17:13).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속이는 계절천이 아니냐고 호소하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소명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대로 전하면서 살았으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악인이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조롱하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속이는 계절천과 같은 분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그 깊은 좌절은 아무나 맛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전한 사람만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큰 수치로 여기고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사람의 말일 뿐이다.

하나님의 대답 (15:19-21)

- 19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일 네가 돌아오면 나는 네가 돌아오게 하고
 네가 내 앞에 서게 할 것이다.
 네가 천박한 것에서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돌아와야 하지만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20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겠으나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를 구원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21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 내고
 잔인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겠다.”

하나님의 대답에서도 세 단어가 반복된다. ‘만일’ (19절 2회), ‘돌아온다’ (19절 4회), ‘건진다’ (20-21절 2회) 등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돌아온다’ 는 단어를 중요하게 사용하여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한다.

19절을 조금 자세히 보면 ‘돌아온다’ 는 말이 앞뒤로 두 번씩 나오고 중간에 동사 셋이 나온다. 그리고 그 세 동사는 모두 예언자의 직분과 관련이 있다.

돌아온다(2회): 예레미야와 하나님
 내 앞에 선다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한다
 내 입같이 된다
 돌아온다(2회): 예레미야와 그 백성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고 ‘속이는 시내’ 와 같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다. 그가 돌아오면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주님의 입처럼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천한 것’ 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이 문맥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가리킬 것이다. 여호와를 향하여 믿을 수 없고 속이는 시내와 같다고 말한 것을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20-21절에서는 건지고 구원한다는 말씀으로 확신을 주신다. 그를 거역하는 자들 앞에서 놋 성벽을 만들어서 건지시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여 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

1장의 소명에 대한 말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신다. 그의 소명을 이루는 데에 고난은 필수적이라고 알려 주시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치를 겪어야 하였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그는 여호와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다.

목상과 실천:

예레미야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

예레미야의 고백서는 읽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한 좌절도 없기 때문인 점도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

예레미야의 질문과 여호와의 대답 사이에 긴장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의 불평에 대꾸하지 않으셨다. 단지 그가 예언자로서 그의 소명을 더 이루도록 권하였을 뿐이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조롱을 받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다. 예언자를 굳게 하시면서 그분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 것이다.

고난은 예레미야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이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공격할 날을 놓고서 말씀하신다. 북방의 철이 온다고 하여도 그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홀로 온 세상의 조롱에 맞서서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므로 하나님께서 ‘속이는 시내’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여호와께서는 돌이켜서 여호와께 나아올 것을 명하셨다.

우리는 온 세상과 맞서서 싸우신 분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함께 연합하여서 그분에게 반대하고 일어났다. 온 세상이 한 사람에게 대항하고 조롱하였지만,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당하셨다.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조롱을 당한 것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주님을 위한 비방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판단하는 일도 있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도 있었다. 그러한 때에 논쟁하거나 싸우지 말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한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시편 69편을 인용하면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하였다(롬 15:3). 주님을 위한 모욕을 받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의 짐을 짊어지는 데에서 나타난다고 가르쳐 준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일이라고 말한다.

15장 익힘 문제

1.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누가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 이 백성의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1절)
2.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네 가지로 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
3. 1) 여호와께서는 특히 어떤 왕의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세계 만방에 흩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4절)
2) 그의 대표적인 악행은 무엇입니까? (4절, 왕하 21:4-6절)
4.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자녀가 끊어지고 유족하던 자가 과부가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 7절)
5.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한 분노를 누구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까? (10, 13, 14절)
6. 1)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돌아오면 그를 무엇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19절)
2) 그를 백성 앞에서 무엇같이 만들어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20절)